성경공부해도 모르는 하나님 알기

(사무엘상 2:12~36)

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성경공부해도 모르는 하나님 알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성경공부해도 모르는 하나님 알기'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문교부에서 증원을 허락해서 저희 신학과 한 과만 무려 천 명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 때에 제가 학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봄과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두 번씩 2박 3일 일정의 사경회를 갖게 되는데, 봄에는 대학전체가 과를 초월해서 사경회를 하고 가을에는 과별로 합니다. 학회장으로서 미리 가을 사경회의 강사를 섭외하는 가운데, 당시로서는 대한민국 개신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제가 신학생 시절에 무척 좋아했던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을 초빙하기 위하여 집무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설교집에 사인을 해주시며 사경회의 주제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16~20절의 말씀인 보혜사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주제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내용은 이해하기에 추상적이고 어렵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21~22절의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라는 말씀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너는 나를 따르라’고 정하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목사님이 정하신 구절로 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대학생 데모가 한창이던 때였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여서 환경이나 여건, 정치적 사회적 상황 등을 탓하면서 마음을 외부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신학생으로서 본분에 충실하면 모두가 다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러한 주제를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당시 신학생들의 태도에 무게를 두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었고, 또한 감히 신학생 주제에 대한민국 최고로 잘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정해주신 주제에 대해서 어떻다고 할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권위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마음에 좋게 여겼고 지금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때의 아쉬움이 피어오릅니다. 목사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사람 신앙인의 결합에 대한 주제를 왜 피하셨을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게 되는 일은 성령운동을 행하는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능력행하고 병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성령님의 인격적 결단과 결정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염두에 두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바로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자신의 연합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교회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만 했을 뿐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합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고,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는 것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믿음의 개념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증거는 반드시 연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과 믿음을 하나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믿음에서는 반드시 연합이 일어남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강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돈이나 이 세상 성공이나 형통, 무병장수와 연합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말 대신에 ‘연합하라’는 말을 써도 기독교의 진리는 머리털만큼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결합)은 반드시 믿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은 이 결합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곧 연합입니다. 지금 같은 식으로 ‘믿으라.’는 말만 하고 실제 연합이 다른 것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완전히 유실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는 단어만 활용하는데 이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영생을 '안다'라는 단어와 연결시키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남녀가 오래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닌, 두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잠자리에 들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합을 통해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과 결합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좋아서 돈과 결합을 합니다. 돈이 좋은 이유는 돈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이렇게 믿을 때에 마음은 반드시 그 대상과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공부에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공부에 늘 마음을 쏟고 성경연구를 지속하며 알게 된 가장 소중한 사실은, 성경공부(벧엘 성경공부, 크로스웨이 등)를 아무리 많이 하고 훈련과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도 바로 이해하고 연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훈련이나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십 가지인데 그 이름을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결합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결합하는 이유는, 좋아하기 때문이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합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 대신 '하나님과 결합하라, 예수님과 결합하라'는 말은 더 올바른 말일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의 아들들인 홉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개역성경에서 온전히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어제 본 한나의 노래 속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1~2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없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구분되고 구분되어서 더 이상 구분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와 같이 최고로 좋으신 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한나

가 사무엘이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것이 곧 여호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고 괴로워 하다가 결국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좋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분명히 구분을 지었습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집안이 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아들들'과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한나가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했다면 사무엘이 먼저이고 더 중하게 여겼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엘리의 아들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과 대조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보다 고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고기가 더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은 고기 먹고 배부름만큼도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분이셨던 것인데,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결합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과 결합하고, 승진을 좋아하는 사람이 승진과 결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결합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행실이 악했고,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왜 생긴 것일까요? 기쁨과 결합의 상관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17: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아버지를 마음에 모심으로 갖게 되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연합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는데 이것이 죄입니다.
본문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알면 죄에 속했다는 것도 아는데, 죄인 됨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심히 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마음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이 기쁨을 체감하는 대상은 세상 것인 돈이나 건강, 내 자식의 성공과 형통일 수 있지만, 생각으로라도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기쁨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결합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 때에 실제로 내 마음은 세상의 기쁨을 체

감하는 것을 죄로 알게 되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생각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으로 기뻐하고 있음이 죄요, 간음으로 알아야 제사가 멸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는 체감의 상태를 죄로 볼 수 있는 생각의 믿음이 있어야 제사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기쁨으로 체감하는 내가 죽어야 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다른 것으로 연합되어 있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내 기쁨으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고 하시는데 무섭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권고하지만 그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줄을 모르는 것이고, 그들이 권고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마다 오늘의 번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결합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좀 벌어서 기쁘고, 사업이 잘 되어서 기뻐하자는데 그것이 무슨 죄냐고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기쁜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인데 왜 억지를 부리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비록 돈 때문에 기뻐하지만 생각 속에서라도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이셔야 하며, 내 마음이 죄에 찌들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합하기를 원치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으로 결정하시면 세상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죄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과 결합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성소에서 진행되는 제사에 개입해서 고기를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번제는 십자가 제사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드려야할 제사입니다. 이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음은 제사를 멸시하는 것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는 습성입니다. 이러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자 근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지 않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셨기에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두신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은 아직 하나님으로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이 없어서 슬퍼하거나 다른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내 마음의 체감의 실질 상태를, 죄로 알 때에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몫(portion)이 커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내 기쁨으로 믿어지는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생각 속에서라도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죄에 찌들었던 내 마음은 계속해서 이 세상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징검다리가 아니라 선으로 이어져 나갈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품고 바라보고 십자가를 품고 듣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충만이 이루어지면서 한나의 노래가 곧 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한없이 이 세상 것들을 갈구하고 있지만, 그것들 위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이상하게 하나님만이 기쁨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결합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